

세계적 경마대회 호주 '멜번컵' 트로피, 한국 온다

“그레이트 코리아컵”...멜번컵도 함께 된다

9월8·9일 랫츠런파크 서울 전시 경마팬 대상 관람·기념촬영 OK 한국경마 국제 인지도 상승 방증

세계적인 경마대회 호주 '멜번컵' 우승 트로피가 9월 한국에 온다. 일명 '멜번컵 투어'로, 한화 약 2억원의 가치를 지닌 18캐럿 금으로 제작된 진품 트로피가 랫츠런파크 서울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가 9월9일 개최하는 국제경마대회 제3회 코리아컵(GI)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방문이다. 멜번컵은 '호주를 멈추는 경주'로 알려진 만큼 호주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1861년부터 시행되어 15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77년부터는 멜번컵 시행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총 상금이 2018년 기준 730만 호주달러(한화 약 59억)에 이른다. 멜번컵 투어는 2003년부터 시작됐다. 거리행진, 모금행사, 지역축제 등 전 세계 다양한 행사에 멜번컵 우승 트로피가 찾아가 경마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제까지 50만km 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400곳이 넘는 장소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6번째를 맞은 멜번컵 투어는 7월10일 영국 런던을 기점으로 시작해, 11월6일 멜번컵이 시작될 때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멜번컵 투어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회 코리아컵(GI)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며, 9월8일부터 2일간 랫츠런파크 서울 관람대에 트로피가 전시된다. 진품 트로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인 만큼 관람 및 기념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멜번컵 투어에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서울이 포함된 것은 한국경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전 세계에 한국 경마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경마회의 등 국제행사 개최와 함께 경주 수출국을 12개까지 늘려가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멜번컵 투어 유치는 한국마사회 국제화 사업의 성과다. 멜번컵 투어와 함께하는 코리아컵(GI)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의 경마시행 최고 등급 GI 국가들이 출전 의사를 밝히며, 한국 포함 전 세계 9개국의 경마축제가 될 전망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세계적인 경마 이벤트 멜번컵 투어가 찾아올 만큼 국제 경마계의 관심이 코리아컵(GI)에 모이고 있다. 코리아컵(GI)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경마 홍보는 물론, 국가 위상까지 높일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호주를 멈추는 경주'로 알려진 경마대회 '멜번컵' 우승 트로피가 9월8일부터 2일간 랫츠런파크 서울 관람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1만535번 출전·937회 우승 하재홍, 조교사 첫 영예전당

'45년 경마장인' 하재홍 조교사가 조교사 최초로 영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하재홍 조교사는 한국 경마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다. 1972년에 경마 기사로 경마계에 발을 내딛은 하 조교사는 1983년에 35조 마방을 개업하며 조교사로 데뷔했다. 지난 6월30일 랫츠런파크 서울 경주로 앞에서 열린 은퇴식에서 35년 조교사 경력을 정리했다. 35년 동안 출전횟수가 1만535번이며, 우승만 937번을 했다. 그 결과, 경력 15년 이상, 출전횟수 5000회 이상, 800승 이상, 제재처분 등을 총망라해서 평가받는 '영예 조교사' 선발 기준을 최초로 통과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9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영예 조교사 포상행사를 열고, 김종국 경마본부장, 안병기 서울 조교사협회 홍보이사가 참가해 하 조교사에게 순금 기념 반지와 트로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하 조교사는 "독보적인 스타말은 없었지만 항상 정상의 성적을 유지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 조교사로 기억에 남고 싶다"며, "조교사를 시작할 때부터 '경마의 진정한 주인은 경마팬과 경주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변함없다. 은퇴했지만 한국 경마의 발전을 위해 밖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용운 기자



기능능력인증을 포니3등급 인증서 수여식이 열린 17일 한국마사회 김중길 부회장과 합격생들이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우리가 한국경마 꿈나무” 마사회, 24명에 '포니 3등급 인증서' 수여

한국마사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에이원승마클럽에서 기능능력인증제 포니 3등급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마사회 김중길 부회장을 비롯해 합격생 24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신규 개발한 기능능력인증제의 하위 등급인 포니 3등급은 약 10회의 기능경험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학생승마체험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

범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첫 시행된 이후 8월 현재 약 1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인증심사에 합격했다. 포니 3등급은 한국마사회의 심사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 승마코치가 심사를 진행한 다. 학생승마체험 참여자가 소속 승마시설에 응시로 1만원을 납부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인증시험을 통과할 경우 인증등급과 심사코치, 소속승마장명이 표기된 한국마사회 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정용운 기자

에이원승마클럽 김상중 대표는 "체형 10회차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생겨 학생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며, "초급자들이 승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잘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포니등급 제도 소개 및 인증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말산업 정보 포털 호스피아(www.horsepi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용운 기자

경마 단신

마사회, 체험형 청년인턴 50명 채용

한국마사회는 2018년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지난 16일 임용식을 진행했다. 올해 청년인턴 모집규모는 50명으로, 지난해 40명 모집에 비해 확대됐다. 연말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한다. 한국마사회는 선발된 인턴들을 대상으로 월 10시간 이상 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 22일 진행된 말산업 현장 체험 교육에서 청년 인턴들은 말 전문 동물병원, 장제소, 경주마 훈련 공간 등을 견학하고, 말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들을 체험했다.

랫츠런 서울, 9월 92개 경주 개최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92개의 경주가 펼쳐진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추석 연휴 휴장으로 경마를 시행하지 않는다. 8일에는 일본, 아일랜드,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5개국의 교류 경주를 시행한다. 각국 경마시행체 관계자가 직접 랫츠런파크 서울을 찾은 예정이다. 9일에는 한국 경마가 최대 이벤트 코리아컵(GI)과 코리아 스피릿(GI)이 열린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경마선진국에서 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주마와 한국 경주마의 대결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편집 | 김대현 기자 bong82@donga.com



축구팬 88% “맨시티, 울버햄튼 꺾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K리그 6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에서 국내 축구팬들은 울버햄튼(홈)-맨체스터 시티(원정)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원정 경기를 갖는 맨시티의 승리 예상은 88.3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양 팀의 무승부 예측과 울버햄튼의 승리 예상은 각각 6.23%와 5.40%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스널-웨스트햄 유나이티드(6경기)전에서는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아스널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83.82%로 다수를 차지했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0.10%로 나타났고, 원정팀 웨스트햄의 승리 예상은 6.08%로 나타났다.



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양 팀의 무승부 예상은 11.54%를 기록했고, 홈팀 상주의 승리 예상은 7.59%에 그쳤다.

AG 여자축구 8강전 스코어 맞히고 치킨 먹자

토토 공식 페이스북 '매치업'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24일(한국시간) 오후 6시에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여자축구 8강 한국-홍콩전 결과를 맞히는 '8월 4주차 MATCH 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MATCH UP 이벤트의 경우 후반 종료까지 최종 스코어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장전 및 승부차기는 제외된다.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팬들 중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태극낭자들은 8강의 길목에서 홍콩을 만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소나기 골을 몰아넣으며 A조 1위(3승)로 8강에 진출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의 일전이었던 2-1로 이긴 대만전 이후 만난 몰디브전과 인도네시아전에서 무려 20골을 폭발시키며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다. 8강 상대인 홍콩 역시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한국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금메달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한국여자축구를 응원하는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벤투맨, 8월 건전화 프로그램 '핫해 핫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벤투맨(www.betman.co.kr)이 진행 중인 8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건전화 프로그램과 함께 가자어'가 23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조회수 1만1000건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한 베팅 문화에 앞장서고자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벤투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

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구매 캠페인'은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

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코베아 네스트 텐트(1명), STANLY GO 세라믹백 텀블러(10명), ROMOSS 프리모스5 무선 보조배터리(20명)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틀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9월 4일에 벤투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